

# 圓覺寺13層塔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오해

남동신(南東信)

## I. 머리말

II. 개항기 서양인들의 발견: 漢城의 ‘非美’에서 ‘奇觀’,  
그리고 ‘偉觀’으로

III. 일제식민기 關野 貞의 조사와 조선총독부의 관리:  
‘10층설’에서 ‘다층설’로

IV. 해방 이후 원각사탑의 재인식: ‘다층설’에서 다시 ‘10층설’로

## V. 맺음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天宮으로서의 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 13(2014); 「佛敎의 理想世界로서의 佛國寺」, 『新羅文物研究』 12(2019); 「甘山寺 阿彌陀佛像과 彌勒菩薩像 造像記의 연구」, 『미술자료』 98(2020) 등

본고는 원각사탑에 대한 지난 백 년간의 근대 학설사를 층수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근대 개항기에 조선을 여행한 서양인들이 종래 한성의 ‘非美’내지는 흉물로 간주되던 원각사탑을 한성의 ‘奇觀’내지 ‘偉觀’으로 재발견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들은 불탑에 관한 예비지식이 거의 없는 서양 출신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원각사탑에 대하여 객관적인 견문기를 남길 수 있었는바, 그들이 접촉한 조선 지식인들을 통하여 대체로 13층설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일인 관변학자들이 원각사탑을 본격적으로 학술 조사하고, 일제식민기 동안 조선총독부가 원각사탑을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과정 및 그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100여 년 동안 원각사탑 층수 문제에 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학설이 10층설에서 13층설로, 다시 다층설로 변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62년까지 원각사탑에 대한 인식이 다층설에서 10층설로 바뀐 경과를 정리하되, 선행하는 일제식민기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이 13층설 일변도였음을 특기해두었다. 다만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원각사탑에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성과가 적지않이 발표되었지만, 층수에 관한 한 대부분 1962년에 확정된 10층설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학설사 검토의 결과, 원각사탑이 13층탑으로서 건립되었다는 근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백 년이 넘도록 13층설은 단 한 번도 공인받지 못하였으며, 학계에서 층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이 10층탑이라는 현재의 통설은, 백 년 전에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가 최초로 주창하였다. 세키노는 원각사에 남아있는 「원각사비」가 글자를 거의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마멸이 심하였기 때문에 원각사탑의 현상만 건축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13층탑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발견된 『속동문선』에 실린 「원각사비」에서 ‘탑 13층을 세웠다.’라는 구절이 확인되었다. 또한 15세기 후반 왕명으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한 편찬자들도 원각사탑의 모범인 경천사탑 또한 ‘13층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원각사탑 건립 직후 왕명으로 건립된 「원각사비」는 세키노의 10층설이 전제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세키노는,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이 올려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13층탑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원각사비」는 세조가 처음부터 13층탑으로서 원각사탑을 건립하였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다만 이례적이게도 13층탑을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을 올린 형태로 조성하였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세조는 왜 13층탑을 세웠으며, 왜 그것을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이라는 이례적인

형태로 구현하였는가? 세조가 원각사13층탑을 건립한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원각사탑의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바, 그 첫 단추는 원래의 명칭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필자는 전제의 오류 위에 구축된 세키노의 10층설—나아가 절충적인 다층설—은 이제 폐기하고, 「원각사비」에서 말하는 13층 설을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주제어: 세조, 원각사탑, 원각사비, 13층설, 10층설, 퍼시벌 로웰,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 이능화, 고유섭

# 圓覺寺13層塔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오해\*

남동신(南東信)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에 현존하는 ‘圓覺寺址十層石塔’(국보)<sup>1</sup>은 최후의 호불군주인 世祖가 건립한 최후의 도성불탑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왕조는 朱子性理學을 건국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국초부터 崇儒抑佛策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신왕조가 한양 도성을 건설하면서 4대문 안에 佛寺의 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은 그 상징적 조치였다.<sup>2</sup> 그런데 유혈정변을 일으켜 집권한 세조는 즉위 10년(1464)을 맞이하여 도성 한복판에 圓覺寺 창건 공사를 일으키고 1467년 백색의 대리석으로 높이 12m나 되는 佛塔을 세웠다. 이 탑은 유교적 이상을 질서정연하게 구현하던 한성에 매우 불협화한 경관을 연출하였는 바, 유교 지배층에게는 신왕조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명백한 역행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세조는 즉위 10년을 기념하는 정치적 상징물로 왜 도성 한복판에 불탑을 세웠는가?

원각사탑은 19세기 말 서울을 방문한 동·서양의 이방인들에 의해 근대적으로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여행기, 보고서, 신문, 잡지, 학술 논저 등 실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가운데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토록 자주 언급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

\* 이 연구는 2020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필자는 2015년 6월 동악미술사학회 제66회 정기학술발표회(나암 장충식 영면 10주기 추모 학술대회)에서 본 연구의 스케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번에는 이를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에서 2021년 10월 3일 검색.

2 한양 도성 건설의 이념적 배경과 경관 구성에 대하여는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서울: 청년사, 1999) 및 청년사 및 장지연, 『고려·조선 국도풍수론과 정치이념』(성남: 신구문화사, 2015)를 참조하기 바람.

널리 알려진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를 통하여 원각사탑 건립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 건립의 주체와 시기는 물론, 탑의 건축적 요소와 특징 등이 두루 검토되었다.<sup>3</sup>

그러나 오랜 축적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건립한 원각사탑의 정체랄까 본질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공식 명칭인 ‘원각사지십층석탑’에서 드러나듯이, 원각사탑의 층수를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 발단은 근대건축학의 이름으로 원각사탑을 최초로 학술 조사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였다. 그는 원각사탑을 근대적으로 발견한 학자라 할 수 있는데, 근대적 발견에는 근대적 오해도 수반되었다. 즉 그는 근대 건축학의 관점에서 최초로 ‘10층설’을 제기하였는 바, 이를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이후 10층설과 다층설의 반복 끝에 1962년 대한민국 정부가 10층설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오늘에 이른다. 반면 「원각사비」(1471년)가 원각사탑은 처음부터 ‘13층탑’으로서 세워졌음을 생생하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지난 100여 년 동안 ‘13층설’은 한 번도 국가에 의해 공인된 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원각사탑이 근대적으로 발견/오인되는 과정을 학설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근대 개항기에<sup>4</sup> 조선을 여행한 서양인들이 종래 한성의 ‘非美’내지는 흉물로 간주되던 원각사탑을 한성의 ‘奇觀’ 나아가 ‘偉觀’으로 재발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남긴 사진과 관찰기는 근대 도시로 변모되기 이전 한성의 경관에서 차지하는 원각사탑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증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로 대표되는 일인 관변학자들이 원각사탑을 본격적으로 학술 조사하고, 일제식민기 동안 조선총독부가 원각사탑을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과정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세키노의 주장이 10층설에서 13층설로, 다시 다층설로 변하면서 정작 탑에 대한 기술은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62년까지 원각사탑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되, 배경으로서 일제식민기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원각사탑에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성과가 적지않이 발표되었지만, 층수에 관한 한 대부분 10층설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겠다.

본고는 근대적 발견 이후 국가가 공인한 ‘10층설’과 ‘다층설’의 학설사를 성찰함으로써, 세키노의 주장에 전제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원각사비」에 근거하여 창건 당시의 ‘13층설’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즉 근대 건축학자가 아니라 창건주의 관점에 서서 원각사탑의 층수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각사탑에 초점을 맞추되, 그 모범인 경천사탑과 비교

3 원각사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는 蘇在龜, 「圓覺寺址十層石塔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1986) 및 궁중유물전시관, 「원각사 10층대리석탑 특별전」(1994)이 있으며, 원각사탑의 典範인 경천사탑에 대해서는 愼銀貞, 「敬天寺十層石塔의 綜合的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천사 십층석탑」Ⅱ 연구 논문(대전: 2006)을 참조할 수 있음.

4 엄밀한 의미에서 ‘개항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부터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전까지를 가리키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전개상 1910년 한일합방까지 확대 적용함.

하거나 경천사탑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를 원용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 Ⅱ. 개항기 서양인들의 발견: 漢城의 ‘非美’에서 ‘奇觀’, 그리고 ‘偉觀’으로

儒者들이 보기에, 한양 도성의 한복판에 우뚝하니 홀로 서 있는 원각사탑은 유교적 예악 문물이 찬연한 한성의 경관을 해치는 매우 흉물스럽고 아름답지 못한 건축물이므로, 반드시 철거해서 근절 시켜야 하는 것이었다.<sup>5</sup>

사실상 세조 사후 원각사의 비운은 예견된 것이었다. 연산군은 원각사를 혁파하고 승려를 축출 하였으며, 끝내는 掌樂院으로 삼도록 하였다.<sup>6</sup> 이어서 중종은 복구와 철폐의 격론 사이에서 ‘置之度外’하기로 절충하였는바,<sup>7</sup> 시간이 흐르면서 탑과 비를 제외한 목조 건축물의 붕괴와 철거는 피할 수 없었다. 언젠가 원각사탑의 상층부 3개층이 지상으로 내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속설이 전해 진다. 즉 탑 건립을 감독하던 安平大君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면서 미쳐 3개층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미완성설,<sup>8</sup> 연산군 10년(1504) 도성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최상부 3개층을 지상으로 내리게 하였다는 설,<sup>9</sup> 중종대 왕명으로 원각사를 철거하면서 탑을 양주 회암사로 이전하려다 중지하였다는 설,<sup>10</sup>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일본으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설<sup>11</sup> 등이 다. 이 중에서 네 번째 설이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 널리 퍼져있었다.

또한 조선 후기 지속적으로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면서 불교에 대한 지배층의 관심은 떨어 지고 식견은 저락하였다. 예컨대 18세기 실사구시를 기치로 등장한 북학과 중에서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이 탑골 근방에 살면서 백담을 노래하였지만, 백담 자체를 전문한 글은 남기지 않았다.<sup>12</sup> 심지어 경천사탑을 12층이라 부르거나,<sup>13</sup> 원각사탑을 14층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sup>14</sup>

5 『명종실록』 권5, 명종 2년 2월 17일(기해).

6 『연산군일기』 권56, 연산군 10년 12월 26일(임오); 권57, 연산군 11년 2월 21일(정축). 한편 장악원으로 삼았다는 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李相佰, 『圓覺寺始末考』, 『郷土서울』 2(1958), pp.87-89.

7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0월 15일(경신).

8 金正浩 編, 『大東地志』 권1, 漢城府 宮室 圓覺寺. 안평대군은 원각사탑이 착공되기 훨씬 전인 1453년에 사사되었으므로, 미완성설은 시중에 떠도는 풍문이라 하겠다.

9 『漢京識略』(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저자 樹軒居士는 柳得恭(1748~1807)의 아들 柳本藝(1777~1842)로 추정된다. 장지연 역해, 『한경지략』(파주: 아카넷, 2020), pp.21-26.

10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京城: 新文館, 1918), p.713.

11 姜浚欽, 『圓覺寺古塔』, 『三溟詩集』 6, “壬辰倭人, 用鍬鉤 鉤塔路之, 纔踏上層, 見石面預刻 當日鉤踏狀, 大驚遂止.”

12 이른바 백담파에 대해서는 이종묵, 『탑골의 역사와 문화』, 『탑골에서 부는 바람: 백담파 이야기』(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5), pp.192-204; 안대회, 『18세기 한양의 풍경』, 앞의 책(2015), pp.205-2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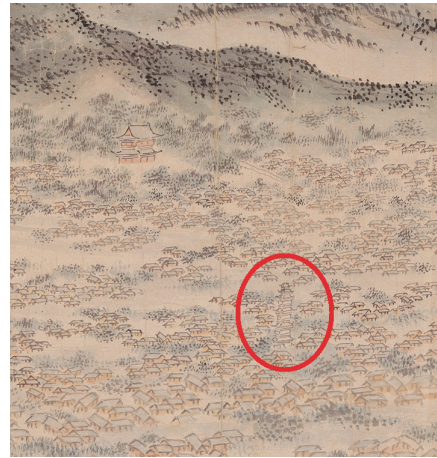
13 李顯益, 『正菴集』 卷7 「西遊記」, “癸未(1703), ……又訪敬天寺於陵西十里地. 寺則已墟, 獨有塔十二層, 制極巧妙, 高麗恭愍王時所建, 而自中國浮海而來云.”

14 李德懋, 『雅堂遺稿』 12 「城市全圖」(『靑莊館全書』 卷20), “亭亭白塔大圓覺, 層級遙空十四果.”





도 1. 한양 도성 한복판에 자리 잡은 원각사 탑, 〈朝鮮城市圖〉부분, 1803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2. 도심의 밀집한 단층 가옥들 사이로 우뚝 솟은 원각사탑, 〈京城圖〉부분, 19세기 초, 57.6×133.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탁수3256)

그런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원각사탑은 19세기 전반에도 여전히 도성 중심부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도 1, 도 2).<sup>15</sup> 이에 국정에 깊이 관여하던 유교 관료들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반면교사로 원각사탑을 언급하곤 하였다. 근대에 가장 많이 인용된 南公轍(1760-1840)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동시대 최고의 문장가로서 14년간 재상을 역임하고 영의정으로 치사하였는데, 일찍이 원각사탑의 역사를 기록한 ‘麗史’를 두찬이라 비판하였으며, 나아가 고려가 복을 구하려고 부처를 숭상하였으나 끝내 멸망에 이르렀다고 경계하였다.<sup>16</sup> 또 朴宗喜(1775-1848)는 승지로 있을 때 ‘사물을 눈으로 보면 알게 되고 알면 믿게 된다.’는 논리에서, 이단에 대한 믿음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도성 내의 大寺洞을 개명하고 그곳에 있는 원각사탑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sup>17</sup> 이처럼 19세기 전반의 유교 관료들은 도심 속의 원각사탑이 유교적 이념이 구현되어야 할 한성의 경관을 해치는 ‘非美’라고 인식하였다.

유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1880년대 문호 개방과 함께 들어온 서양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크게 바뀌었다. 그들은 인구 25만이 거주하는 한성의 도심에 백색의 석탑이 홀로 솟아있는 기이한 경관에 강렬한 첫인상을 받았다. ‘漢城의 奇觀’은 원각사탑이 더 이상 非美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한성의 유일한 볼거리[偉觀]로 유명해지게 하였다. 서양의 이방인들은 이 탑을 근대의 발명품인 사진기로 촬영하거나 도해하거나 채색화로 묘사하였으며, 조선 사람들의 口傳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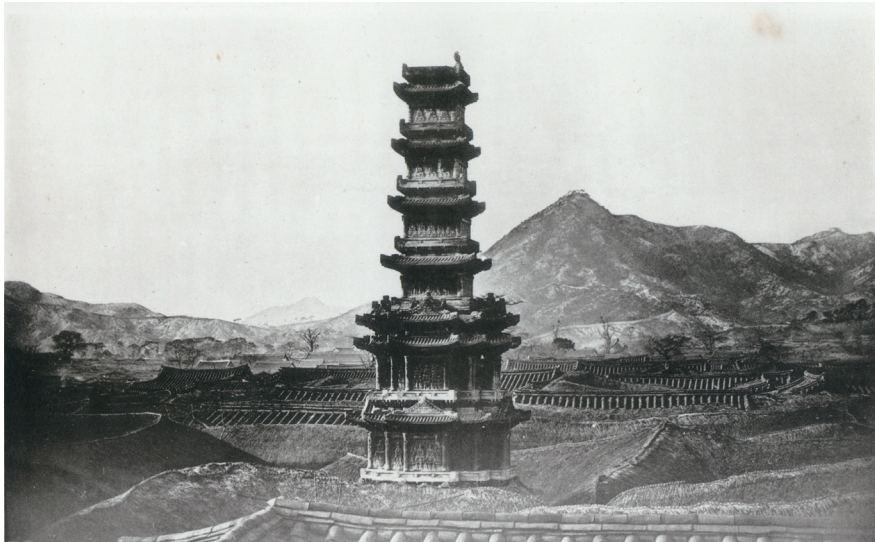
15 19세기 전반 한성의 경관과 원각사탑의 위상을 보여주는 시각자료는 다음과 같다. 〈朝鮮城市圖〉, 紙本彩色, 1830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京城圖〉, 작가 미상, 19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탁수3256); 〈塔洞宴帖〉, 작가 미상, 1803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6 南公轍, 『金陵集』, 「高麗佛寺塔記」.

17 朴宗喜, 『晩村漫稿』, 「都下大寺洞石塔論」.

대로 채록하고 자신들이 견문한 바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 일본 주재 미국 외교관이자 나중에 천문학자로 더 유명해진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다. 그는 고종의 초청을 받아 1883년 12월~1884년 2월 사이 서울에 짧게 체류하였는데, 이때의 여행기가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서양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 책에는 최초의 고종 사진을 비롯하여 다수의 귀중한 사진들이 실려있는데, 원각사탑의 근경 사진은 그가 민간의 오랜 금기를 깨고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근대화 직전 한양 도성을 배경으로 한 원각사탑의 독보적인 偉觀을 웅변한다(도 3). 또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 경관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함의를 깊이 분석한 글은 고전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멀리 백악산을 배경으로 파상적인 단층 가옥의 지붕들 위로 백색의 탑이 불쑥 솟아있는데, 로웰은 이 奇觀에서 역설적이게도 종교 건축물의 절대적인 결핍, 나아가 조선 시대 종교의 부재를 간파하였던 것이다.<sup>18</sup>



도 3. 로웰이 1884년 초 민가 지붕에 올라가서 촬영한 원각사탑, Percival Lowell, 1886

---

18 Percival Lowell, *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Boston: Ticknor and Company, 1886, 2<sup>nd</sup> edition), pp.187-189. 이 책의 번역서로는 조경철 옮긴,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서울: 예담, 2001)이 있으며, 로웰의 사진에 대한 연구로는 정영진, 「퍼시벌 로웰의 서울 사진에 대한 고찰」, 『서울과 역사』 102(2019)가 있다.



로웰에 이어 미국 장로교회의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1884년 9월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는 원나라 황제가 고려에 시집간 공주에게 선물로 보낸 13층탑이라는 구전을 채택하는 한편, 원각사탑에 대하여 의학도의 시선으로 도면을 결들인 자세한 관찰기를 처음으로 남겼다.<sup>19</sup> 알렌은 나중에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에 대하여 몇 권의 책을 더 집필하였는데, 1904년 책에서 탑은 1250년 경 중국 황제가 남경에서 조성하여 서울로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sup>20</sup> 아쉽게도 1908년에 출간한 대표작에서는 보신각종은 언급하였지만, 원각사탑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sup>21</sup>

한편 프랑스 여행가이자 민속학자인 샤를 바라(Charles Varat)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민속학 연구의 임무를 부여받고 1888년 조선에 와서 이듬해까지 각지를 여행하였다. 그는 여행기를 《Tour du Monde》에 1892년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제1회에서 원각사탑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2회에 백악산 원경을 배경으로 하는 원각사탑 동판화를 실었다. 동판화는 앞서 언급한 퍼시벌 로웰의 사진을 보고 리우(Liou)가 그린 것이다.<sup>22</sup> 동판화와 더불어 탑을 8층이라 한 점, 뛰어난 건축물이 사각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 정부의 불교포기정책 탓이라고 한 점 등을 보건대, 원각사탑에 대한 바라의 견문이 대체로 로웰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바다가 이 탑의 8층은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기까지 거처야 하는 불교의 8천을 각각 상징한다고 기술한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해석이 바라 자신의 견해인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원각사탑의 층수를 불교도의 수행 단계와 연관해서 해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인 헨리 새비지 랜도어(A. Henry Savage-Landor)는 1891년 정초부터 몇 달간 한성을 관광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는 골목 안의 원각사탑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는 이 아름다운 대리석 탑에 대하여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중국 기원설을 언급하였다.<sup>23</sup> 그의 그림은 뒤에 언급할 게일의 책에 수록된 사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유명한 여류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 Bishop)은 1894년 겨울부터 1897년 봄 사이 네 차례나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원각사탑은 원래 13층이었는데, 제일 상층부의 3개 층이 3백 년 전 일본의 침략으로 석탑 옆에 내려졌다는 구전을 채록하였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백색의 대리석탑이 한성에서 가장 좁고 더러운 골목 안 민가의 뒷마당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래서 13층 대리석탑의 사진을 찍으려고 그녀는 다

19 Horace N. Allen, "The Marble Pagoda: or Stone Pagoda", *The Korean Repository*, (April, 1895), pp.127-131.

20 Horace N. Allen, "Chronological Index", *Korea, Fact and Fancy*(Seoul: Meghdist Publishing House, 1904), p.146, pp.174-175.

21 Horace N. Allen, *Things Korean*(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22 Charles Varat, "Voyages en Corée", *Tour du Monde*, (Paris, 1892, 5, 7.), p.300·(5, 1, 4), p.305; Charles Varat & Chaillé-Long, "Voyage en Corée", *Deux voyages en Corée* (Kailash Éditions & Librairie Oriens, 1894), p.47, p.57; 성귀수 옮김, 「조선 종단기」, 「조선기행」(서울: 눈빛, 2001), pp.72-73.

23 A. Henry Savage-Landor,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London: William Heinemann, 1895) pp.111-112.

첫 번이나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지만, 로웰처럼 담장이나 지붕 위에 올라갈 수는 없었기에 아무런 사진도 남기지 못하였다. 다만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동네 아이들이 탑에서 조각을 떼서 외지인들에게 기념품으로 팔고 있었다고 하였다.<sup>24</sup>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화답하여 미국 정부가 파견한 3명의 교사 중 한 명으로, 1886년 7월 조선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892년에 교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조선에 머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 역시 몽골 황제가 고려로 시집간 공주를 위한 선물로서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을 보냈다는 오래된 전설을 채록하면서, 공원화 사업으로 주변의 민가가 철거된 직후의 원각사탑 사진을 남겼다.<sup>25</sup>

1901년 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여행가 버튼 홈즈(E. burton Holmes)는 가장 흥미를 느낀 서울과 원각사탑에 대한 사진과 견문을 남겼다. 특히 공원화 사업을 지켜본 그는 미로처럼 얽힌 누추하고 좁은 골목길 안에 오랫동안 감추어지고 잊혀졌던 원각사탑의 정비를 서울 근대화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sup>26</sup>

한편 지금까지 탑골공원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소 불분명하였는데,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가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증언을 남겼다. 즉, 1897년 무렵 어느 일본인이 원각사탑을 입수하려고 하자, 당시 탁지부의 재정고문으로 있던 아일랜드 출신의 브라운(J. McLeavy Brown)이 이를 제지시키고 고종에게 원각사탑 일원의 공원화를 건의하였다고 한다.<sup>27</sup> 이는 한국 최초의 근대공원인 파고다공원이 브라운의 건의로 이루어졌음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중요하다.

프랑스 고고학자 에밀 부르다레(Bourdaret, Emile)는 또 다른 관점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그는 높이 11m의 경이로운 13층탑이 시내 중심가 종로 근처의 나병 환자들 오두막촌 한복판에 오랜 세월 파묻혀 있다가 발굴되었다고 하였다.<sup>28</sup> 이런 증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실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원각사가 폐사 이후 지배층으로부터 오랫동안 외면당하면서 도시슬럼화 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은자의 나라, 한국』으로 유명한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는

24 Isabella B. Bishop, *Korea & Her Neighbours*, Vol. 1, (London: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1898) pp.39-40;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서울: 살림, 1994), pp.56-57.

25 Homer B. Hulbert, "The Marble Pagoda", *The Korea Review*, Vol.1, No.12(edited by H. B. Hulbert, 1901); \_\_\_\_\_,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6), pp.86-87.

26 E. Burton Holmes, *Seoul, The Capital of Korea* [Travelogues—with Illustrations from Photographs by the Author, Vol. 10] (New York: The McClure Company, 1908), pp.30-35; 이진석 옮김, 『1901년 서울을 걷다』(서울: 푸른길, 2012).

27 幣原坦 고증, 「パゴダ公園の古塔考」, 『朝鮮研究』 1권-9호(1928), pp.41-42.

28 Bourdaret, Emile, *En Corée: ouvrage accompagné de 30 gravures hors texte* (Paris: Plon-Nourrit, 1904); 정진국 옮김,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파주: 글항아리, 2009), pp.108-110.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한국에 관한 저서를 남겼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사진을 가장 많이 수집하였다. 뚝터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그의 컬렉션은 최근 조사 보고되었는데, 거기에는 원각사 관련 사진이 최소한 8컷 포함되었다.<sup>29</sup> 촬영자와 촬영 시기를 알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개항 직후부터 공원화 직후까지 망라하였다. 그 중에서도 원각사탑의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포크(George C. Foulk)가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sup>30</sup>

마지막으로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목사의 성과를 언급해두고자 한다. 게일은 선교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그가 1889년 3월 경 촬영한 사진은 좁고 누추한 골목안에서 주민들 10명 및 민가 위로 상층부를 드러낸 원각사탑을 잘 보여준다(도 4).<sup>31</sup> 이때까지는 그의 기록 역시 외부인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들여다본 여행기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그는 한국어에 능통해진 1915년 서양인 최초의 학술적 논고를 발표하였다. 이 논고에서 그때까지의 연구사를 서구인들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조선 지식인 金瑗根의 도움을 받아 원각사비를 직접 조사 판독하고 최초로 전문을 영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32</sup>

이처럼 서양의 이방인들이 남긴 사진, 그림, 도면 자료는, 조선시대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개항 직후부터 세기말의 탑골공원화까지 대략 20년에 걸치는 원각사탑과 주변 경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인식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 한자나 불교에 생소한 이방인들이기에 그들을 안내한 조선인들의 전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들 기록을 통하여 원각사탑에 대한 조선인들



도 4. 좁고 누추한 골목 안의 원각사탑-James S Gale 1898

29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pp.326-336; 양상현·유영미 역음,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서울: 눈빛, 2020).

30 미국인 조지 클레이튼 포크(George Claton Foulk)는 1884년 5월에 무관으로 조선에 부임하여 지방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일기와 사진을 남겼다. 그의 일기는 근래 사무엘 홀리(Samuel Hawley)가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Samuel Hawley, *Inside the Hermit Kingdom: The 1884 Korea Travel Diary of George C. Foulk*(Lanham: Lexington Books, 2007). 조법중·조현미, 『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서울: 알파미디어, 2021)은 이 가운데 삼남지방 조사기를 번역한 것이다. 포크가 한성을 촬영한 사진들은 아쉽게도 그가 일본에서 요절함으로써 전하지 않는데, 그 일부가 그리피스 컬렉션에 흘러들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31 James S. Gale, *Korean Sketches*,(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8), p.234, 'Buddhist Pagoda'.

32 James S. Gale, *The Pagoda of Seoul,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VI, part II(1915). 한문과 영어에 능통하였던 金瑗根은 배재학당과 정신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朝鮮鑄字考』를 비롯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원각사탑은 경천사탑과 아울러 원나라 황제가 고려로 시집간 공주에게 선물로 보낸 13층탑인바,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가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상층부 3개층을 지상을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 Ⅲ. 일제식민기 關野 貞의 조사와 조선총독부의 관리: ‘10층설’에서 ‘다층설’로

#### 1.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인식; ‘10층설’, ‘13층설’, ‘다층설’

서양인들에 뒤이어 일본인들이 원각사탑에 관심을 갖고 고찰하였다. 일본인들은 한문 원전을 읽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불교 지식도 풍부하였을 뿐 아니라, 그중에는 도쿄대 출신을 비롯한 엘리트 지식인들이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본인 가운데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 庄三郎)가 처음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그는 『中京志』 사찰조를 인용하여, 경천사석탑을 13층이라고 보았다.<sup>33</sup>

사실상 원각사탑의 학술 조사와 연구는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東京帝大 공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세키노는 한국 정부의 초빙을 받아 1902년 7월부터 전후 62일 동안 한국 건축을 최초로 조사하였으며, 이듬해 9월에 먼저 원각사탑에 대한 짧은 논고를 사진과 함께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원의 順帝가 至正 8년(충목왕 4년) 경천사탑과 원각사탑을 제작하여 고려로 보낸 것이라는 『금릉집』의 설을 받아들였다. 다만 기왕의 13층설을 속칭이라 치부하고 대신 ‘3층의 기반 위에서 있는 10층의 탑파’라는 10층설을 최초로 제기하고 탑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기를 남겼으며, 아울러 탑신부의 편액을 도합 12층으로 간주하고 층별 위치와 명칭을 처음 정리하였다.<sup>34</sup>

같은 해 11월 시데하라 타이라(幣原 坦)도 학술적인 글을 발표하였다. 도쿄대 국사와 출신인 그는 세키노보다 앞서 1900년 대한제국 정부의 학부고문 자격으로 조선에 왔다. 그 역시 ‘성중 제일의 舊物’인 원각사탑에 관심을 갖고, 『금릉집』, 『대동금석서』, 『漢城坊里錄』 등의 관련 문헌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그때까지 발표된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의 기록을 요약 정리하였다. 특히 시데하라는 세키노와 함께 원각사비를 최초로 직접 조사하고 판독을 시도하였지만, 그 무렵 이미 비면이 심하게 마멸되어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경천사탑기를 신뢰하여 경천사탑과 원각사탑 모두 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간주하고, 현지 조선인들의 전문을 받아들여 두 탑 모두 13층탑이라고 하였다.<sup>35</sup> 시데하라는 1906년 일본으로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도쿄제대 교수가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발

33 金澤庄三郎, 「韓國の首都京城」, 『朝鮮月報』 4(1900), pp.39-46, p.46.

34 關野 貞, 「韓國京城廢大圓覺寺石塔婆」, 『考古界』 제3권 제4호(1903. 9.), pp.1-6.

35 幣原 坦, 「京城塔洞の古塔に關する諸記録に就て」, 『韓國研究会談話錄』 第3号(韓國研究会 編, 1903. 11); \_\_\_\_, 『朝鮮史話』(東京: 富山房, 1924), pp.83-93 재수록; \_\_\_\_, 앞의 글(1928), pp.41-47.

표한 글에서 13층설을 견지하였다.<sup>36</sup>

한편 일본으로 돌아간 세키노는 1904년 한국 건축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출간하였는데, 출간에 앞서 시데하라의 글을 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기존 견해를 바꾸지 않았으며 대신 사진과 도면을 추가하고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제 논지의 전개에 필요한 정도에서 요약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三. 廢大圓覺寺大理石塔婆

건립 시기: 『輿地勝覽』과 「高麗佛寺塔記」(『金陵集』) 등을 인용, 풍덕 경천사탑과 거의 같이 원 순제 지정 8년, 즉 고려 충목왕 4년으로 비정

원각사비: 원각사탑과 관계없으며, 세조대 원각사의 중건을 반영

형상: 탑과는 10층으로서 3층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기에 속칭 十三層塔婆라고 함.(밑줄 필자) 상부 3층은 옆에 내려져 있는데, 口碑에 의하면 壬辰役 때 加藤清正이 일본으로 보내려고 내려지만 중량이 과대하여 버리고 돌아갔다고 함. 기단은 각각 방형으로서 각 면은 斗出하였으며, 크기는 지름 11척 6촌임. 탑신은 상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부는 3층으로서 그 평면은 기단과 마찬가지로, 상부는 7층으로서 각각 방형의 평면을 가짐. 정상에는 보주와 노반이 있었던 것 같지만 현재는 파괴되어 볼 수 없음. 전체 높이는 50척 남짓이며, 제3층 난간까지의 높이는 지반으로부터 18척 7촌

편액: 1~3층에 12회의 편액 목록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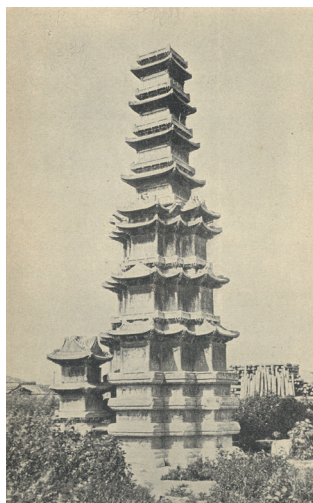
가치: 전체 權衡이 거의 완미하고 수법 또한 자재하게 奇趣橫生함. 의장이 풍부하고 조각이 정묘하여 경탄할 만하며, 세부를 보면 당시 건축술의 형식과 수법 또한 역력하여, 전설대로 원나라 工匠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 그 형식 수법은 원의 真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 고려의 기술이 그 영향을 입은 것 컸다고 할 수 있음. 경천사의 것과 더불어 기술이 정묘하여 한국에 있는 유물 중에 제일류일 뿐 아니라, 원나라 기술의 정화를 전하는 것으로 支那에서도 진귀

四. 廢敬天寺大理石塔婆: 회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기단 지름이 10척 3촌이며, 형상과 의장은 경성 대원각사터에 있는 것과 부합. 크기가 원각사탑보다 높기와 폭이 1/10 가량 체감하였으며, 세부 조각의 수법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형식이 일치하여 같은 시대 같은 工人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은 의심할 바 없음.<sup>37</sup>

36 幣原 坦, 앞의 글(1928), pp.41-47.

37 關野 貞, 「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學術報告 제6호, 1904), pp.87-92, 제50도~제56도(이상 원각사탑), 제57도~제58도, pp.92-93(이상 경천사탑).





도 5. 1902년 당시 원각사탑, 세키노 1903



도 6. 1902년 당시 경천사탑, 세키노 1904

세키노 보고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근대 건축학의 관점에서 실재하는 불탑을 관찰하고 사진과 도면을 곁들여 현상을 기술하되, 형상과 의장이 흡사한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을 동시대 동일 인물에 의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비교 연구하였다는 점이다(도 5, 도 6). 그는 특히 원각사탑에 대하여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이 올려진 대리석탑’, 즉 10층석탑으로서, 1348년 원에서 온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이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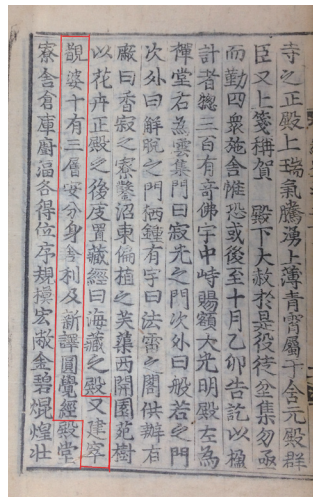
세키노의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도쿄제대 건축학과 조교수로서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으며, 이 보고서는 한국 건축에 대한 최초의 학술 조사 보고였다. 그는 같은 학과의 이토 츠타(伊東 忠太)와 더불어 일본 근대 건축학의 개척자였을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촉탁을 받고 편찬한 『朝鮮古蹟圖譜』(전 15권)로 국제적 명성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권위와 명성을 갖고 그는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관련 위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로 이 보고서는 근대에 재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원각사탑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글이라 하겠다.

문제는 관련 문헌자료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 말한 ‘13층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결정적인 자료인 원각사비문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그도 시데하라와 같이 비를 실사하였지만, 앞뒤에 명문을 새긴 형적만 있을 뿐 마멸이 심하여 거의 읽을 수 없었고 종래에도 읽은 자가 없었다(도 7). 또한 이 비가 세조 10년의 원각사 재흥과 관련 있다는 시데하라의 글을 보았지만, 그는 탑과 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sup>38</sup>

38 關野 貞, 1904 앞의 책(1904), pp.215-216.



도 7. 1902년 경의 탑골공원과 원각사비, 세키노 1904



도 8. 원각사비문의 13층탑 건립 기사, 『속동문선』 권2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 직후인 1906년 6월 도쿄제대 법대 출신의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가 統監府 法務院의 評定官으로 조선에 왔다. 그는 이때부터 1918년 일본으로 귀환할 때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조선의 법제를 연구하는 한편 1909년에 在朝日人들이 창립한 朝鮮古書刊行會에 참여하며 열정적으로 고서를 수집하였다. 그는 늦어도 1909년 무렵 『續東文選』을 열람하다 뜻밖에도 마지막 권에 실린 金守溫 찬술의 「대원각사비명」(이하 원각사비)을 발견하였다. 아사미의 발견으로 그때까지 판독 불가능했던 원각사비가 원각사탑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특히 비문의 '建窠觀婆十有三層'이라는 구절은(도 7) 세키노의 10층설이 수정 불가피함을 의미하였다. 아사미는 1916년 7월의 古蹟調査委員會 規程에 따라 설치된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세키노는 1908년 가을 탁지부의 촉탁으로 다시 한국에 와서 유물 유적을 조사하였으며, 이듬해 한국의 건축물에 대하여 종로 廣通館에서 강연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아사미 린타로의 발견을 반영하여 원각사탑의 건립 주체와 시기 및 탑의 층수에 대한 자신의 기존 견해를 모두 수정하였다. 즉, 경성 파고다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탑은 세조가 풍덕군 부소산 경천사에 있던 고려 말의 13층 석탑을 모방하여 건립한 13층의 대리석탑임을 분명히 하였다.<sup>39</sup> 그리고 1910년 8월 탁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그는 두 탑이 모두 13층임을 거듭 확인하였다.<sup>40</sup>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13층설을 받아들인 이때의 글은 학계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13층설을 폐기하였다.

39 關野 貞, 「韓國藝術の變遷に就て」, 『韓紅葉』(度支部建築所, 1909); 『韓国併合史研究資料』 92(東京: 龍溪書舍, 2011 復刻), p.46 圖34, pp.58-59.

40 關野 貞, 『朝鮮藝術の研究』(1910); 『韓国併合史研究資料』 92(東京: 龍溪書舍, 2011 復刻), pp.27-28, p.32 '第一, 朝鮮遺蹟一覽(地方別), p.72 '朝鮮重要遺蹟一覽(時代別)'.

한일합방이 있고 3년 후인 1913년 세키노는 동양미술 관련 전문 잡지인 『國華』에 한국의 석탑을 연재하면서, 직전의 13층설을 다시 바꾸어 다층설을 제기하였다.

甲. 폐원각사대리석다층탑; 이 탑은 온전히 풍덕군의 경천사탑을 모방한 것으로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10층으로서 3층의 기단 위에 세워졌기에 13층탑이라고 부른다 ... 전부 백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그 형태 양식 12회상의 조각 기타 天部, 인물, 蟠龍, 화문 등의 수법은 거의 다 경천사의 것을 모방한 것이지만 세부에서는 다소의 상위가 있다.(밑줄 필자)<sup>41</sup>

다층설 또한 세키노가 처음 제기한 학설인데, 그는 이후 이 설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특히 그는 대표작인 『朝鮮古蹟圖譜』를 통하여 경천사탑은 10층이라 하면서도 원각사탑은 다층석탑임을 학계에 폭넓게 각인시켰다.<sup>42</sup> 그후 1923년 9월~1924년 11월 사이 조선사학회의 요청을 받고 월간 『朝鮮史講座』에 분류사로서 『朝鮮美術史』를 15회에 걸쳐 연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각사탑은 물론 경천사탑도 다층탑이라고 하였다. 1932년 교토제대 교수직에서는 은퇴하였지만 여전히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앞서의 강좌를 수정 보완하고 아울러 삽도를 전부 개편 추가한 다음 朝鮮史學會에서 단행본 『朝鮮美術史』를 출간하였다.

폐경천사대리석다층탑; 이 탑은 四面斗出星形의 평면을 가지는 3층의 기단 위에 같은 평면의 탑신 3층을 거듭하고 다시 그 위에 방형 7층의 탑신을 일으킨 것으로서, 속칭 13층이라고 한다. 그 두출 성형의 평면은 라마 예술의 영향이라 보아야 하겠다. 이 탑은 회색의 대리석으로 축조 하였으며, 기단의 각 면에는 정교한 불, 보살, 인물, 草花, 蟠龍 등을 양각하고 그 위에 세워진 10층의 탑신에는 柱槩 高欄 屋蓋를 만들고 12회상을 조각하였으며(이하 생략)

폐원각사대리석다층탑; 지금 파고다 공원 안에 세워져 있다. 세조 12년의 건축으로서 고려 말에 완성된 경천사다층탑을 모방한 것으로 전부 백대리석으로 이루어졌으며 3층의 두출성형의 기단 위에 10층의 탑신을 일으키고(이하 생략)<sup>43</sup>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경천사탑과 원각사탑을 13층탑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견해를

41 關野 貞, 「朝鮮の石塔婆(五)」, 『國華』第24編 第280號(1913), pp.67-69; 『朝鮮の建築と藝術』(東京: 岩波書店, 1941), pp.567-571 재수록.

42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제6책(1918), pp.752-753, 「廢敬天寺十重大理石塔」; 제13책(1919), pp.1901-1913, 「圓覺寺多層石塔」.

43 關野 貞, 「朝鮮美術史」, 『朝鮮史講座』 제11호(1924. 7), p. 124, pp.130-131 「廢敬天寺大理石多層塔」; 『朝鮮史講座』 제15호(1924. 11), pp.344-345 「廢圓覺寺大理石多層塔」. 이 두 편은 『朝鮮美術史』(京城: 朝鮮史學會, 1932), p.144, pp.151-153 및 pp.233-234에 각각 증보되어 실렸다. 이에 대한 번역서는 沈雨晟 譯, 『조선미술사』(서울: 東文選, 2003), p.216, pp.223-225, p.304.

여전히 속칭이라 치부하고 ‘3층의 斗出星形의 기단 위에 10층의 탑신’을 한 대리석다층석탑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세키노는 『동국여지승람』, 『대동금석서』, 『원각사비』에서 한결같이 두 탑을 13층탑이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각사탑의 건립 주체와 시기만 수정하였을 뿐 13층설은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13층설을 속칭으로 치부해버리기에 문헌적 근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였다. 고심 끝에 세키노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다층설’인데, 후술하듯이 이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 2.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지정과 관리

조선총독부는 참서관실 주도로 1913년 초봄부터 조선금석문 조사 사업에 착수하여, 1914년 그때까지 수집한 탁본 일부를 전시하였는데, ‘京城圓覺寺碑銘’에 대한 설명문에서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이 13층탑이라고 명기하였다.<sup>44</sup> 그리고 이듬해 참서관실에 근무하던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가 최초로 판독문을 작성하였다. 오다는 참서관실에서 수집한 원각사비 앞 뒤면의 탁본을 읽고 판독을 시도하였는데, 탑의 층수와 관련된 구절은 마멸이 심하여, 결국 『續東文選』에 실린 「大圓覺寺碑銘」을 인용하여 ‘又建窣覩婆十有三層 安分身舍利及新譯圓覺經’이라고 온전히 읽을 수 있었다. 나아가 그는 徐居正이 찬술한 음기도 처음 판독하였는데, 당시로서는 달리 교감할 자료가 없는 유일한 판독문이었다.<sup>45</sup>

그런데 1916년 7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령으로 「朝鮮古蹟及遺物保存規則」과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발표하였다.<sup>46</sup> 이로써 근대 국가가 고적 및 유물을 문화재로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서 1917년 3월 원각사탑을 古蹟及遺物에 제1번으로 등록하였다. 당시의 등록대장에 따르면 공식 명칭은 ‘圓覺寺址十層石塔’이며, 탑의 형상에 대한 설명은 세키노가 1904년에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sup>47</sup> 다만 건립 시기와 건립 주체는 원각사비 발견 이후 세키노가 수정한 견해를 공인하였다.

세키노는 1923년 4월 무렵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고적조사위원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sup>48</sup> 그의 다층설은 한국 고건축 분야의 일본인 전문가들에게 수용되었다. 예컨대 세키노의 제자로서 나중에 그를 이어 도쿄제대 건축과 교수가 된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sup>49</sup>와, 1935년부터 조선총독부

44 朝鮮總督府, 「朝鮮金石文의陳列」, 『朝鮮總督府月報』 제4권 제9호(1914), p.104.

45 小田幹治郎, 「京城塔洞公園の塔碑」, 『朝鮮總督府月報』 제5권 제1호(1915. 1.), pp.34-44. 이 판독문이 『朝鮮金石總覽』 下(朝鮮總督府, 1919)에 수록되었다.

46 『朝鮮總督府官報』 제1175호(1916. 7. 4.), pp.33-34.

47 朝鮮總督府, 《古蹟及遺物登錄臺帳》(1917. 3. 15); 朝鮮總督府學務局古蹟調査課,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1924), p.1.

4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0(1923), pp.42-43.

49 藤島亥治郎, 「朝鮮塔婆의樣式と變遷」, 『塔婆之研究』(夢殿論志 第十冊特輯, 1933), p.129. ‘廢敬天寺八角多層石塔’, ‘廢圓覺寺多層石塔’.



에서 조선의 보물과 건조물의 조사 보존 사업에 종사한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sup>50</sup>가 그대로 따랐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33년 8월에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던 국보보존법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의 두 법령을 통합하되 ‘국보’를 ‘보물’로 명칭을 격하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하 보존령)을 발포하였다.<sup>51</sup> 이로써 식민지 조선의 고적 및 유물의 보존을 국가의 관리 아래에 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설치하였는데, 보존회 위원의 면면을 보면 조선총독부의 국장 6명을 위시한 관료 13명과, 세키노 타다시, 오다 쇼고(小田省吾),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아유키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의 관변 일본학자들이 포진하였으며, 조선인으로는 이능화와 최남선 및 김용진이 포함되었다.<sup>52</sup>

보존위원회는 1934년 5월 보물 210점을 포함한 총 252점을 새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고시하였는데, 이때 보물 제4호로 지정된 것이 바로 ‘원각사지다층석탑’이었다.<sup>53</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왕에 10층탑이라 부르던 것을 이때 와서 다층탑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각사탑처럼 시각적으로 층수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층수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다층’이라고 개칭하였는가?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는 대립하는 13층설과 10층설을 절충한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원각사탑은 3층의 기단 위에 10층의 탑신이 올려진 구조를 하고 있다. 애초에 원각사비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세키노는 일본 근대 건축학의 개척자이자 도쿄제대 교수라는 권위를 갖고 조선인들의 13층설을 속칭으로 치부하고 10층설을 주창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사미가 『속동문선』에 수록된 원각사비에서 ‘十有三層’의 구절을 확인한 이래로 시데라하라가든가 오다처럼 비문을 근거로 13층설을 주장하는 일본 관변학자들도 있었다. 세키노로서는 근거가 확실한 13층설을 속칭으로 계속 치부할 수 없게 되었지만, 탑신을 기준으로 층수를 정해야 한다는 학문적 소신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보존위원회는 대립하는 13층설과 10층설을 ‘다층탑’으로 미봉하였는데, 이 모호한 절충안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종식될 때까지 정설로 통용되었다.<sup>54</sup>

50 杉山信三, 『朝鮮の石塔』(東京: 彰國社, 1944), pp.45-46. 한편 스기야마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원각사탑의 조성 연대를 다른 논문을 발표하였다. 杉山信三, 「朝鮮圓覺寺多層石塔造立年次への疑ひ」, 『日本建築學會研究報告』4(1949).

51 『동아일보』1930. 3. 20. 2면, 「朝鮮古蹟遺物 등 保存法令制定」; 『朝鮮總督府官報』號外(1933. 8. 9.), 1면.

52 『동아일보』1933. 12. 15. 1면, 「名勝古蹟保存委員」.

53 『朝鮮總督府官報』第2290號(1934. 8. 27), p.201; 『동아일보』1934. 5. 3. 2면, 「國寶 二百五十二點 萬歲에 保存을 決定」.

54 朝鮮總督府, 1937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要覽』, pp.4-5 참조. 한편 총독부에 근무하던 문헌학자 葛城末治는 1924년에도 여전히 세키노의 십층설에 근거하여 ‘13층탑’은 바른 호칭이 아니라고 하였다. 葛城末治, 「朝鮮金石文」, 『朝鮮史講座』제14호(1924. 10.), p.228; \_\_\_\_\_, 「朝鮮金石文」, 『朝鮮史講座 特別講義』(1924), p.134.



## IV. 해방 이후 원각사탑의 재인식: ‘다층설’에서 다시 ‘10층설’로

### 1. 일제하 조선 지식인들의 ‘13층설’

우선 일제 치하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가장 먼저 원각사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료를 정리한 사람은 李能和이다. 1915년 그는 『세조실록』, 『淸權輯遺』, 『稗官雜記』, 『대원각사비』 등의 문헌에서 원각사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하면서, 이들 자료를 근거로 원각사탑을 13층탑이라고 보았다.<sup>55</sup> 그리고 이듬해에는 원각사비의 음기 전문을 소개하였으며,<sup>56</sup> 1918년 그의 대표작인 『朝鮮佛教通史』에서 다시 한번 김수온의 「圓覺寺碑文」과 서거정의 「大圓覺寺碑陰記」 전문을 수록하였다.<sup>57</sup> 그가 출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비양은 마멸된 글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속동문선 수록본이며, 비음은 오다의 판독문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능화의 글은 논고라기보다는 원각사에 관한 문헌자료를 취합한 순한문체의 자료집에 가까웠다.

이능화를 필두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각종 언론 매체나 저술을 통하여 원각사탑을 언급하였다. 시기순으로 열거하면, 權相老(1917),<sup>58</sup> 權惠奎(1921),<sup>59</sup> 필자미상(1925),<sup>60</sup> 崔南善(1930),<sup>61</sup> 金敬注(1934),<sup>62</sup> 필자미상(1936),<sup>63</sup> 金映遂<sup>64</sup> 등으로서, 이들은 한결같이 원각사탑을 13층탑이라고 인식하였다. 이 중에서 권상로와 이능화와 김영수는 일제시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佛敎史家들이다. 또 이능화와 최남선은 1934년 원각사탑을 보물로 지정할 당시 조선인을 대표하여 위원으로 참석하였지만, 이들은 보존위원회에서 소수였을 뿐 아니라 불교 건축에는 문외한이었으며, 더욱이 이들 글은 학술적인 성격의 논고도 아니었다.

조선 지식인으로서 좀더 학술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13층설을 제기한 인물은 한국미술사의 개척자인 高裕燮이었다. 그는 경성제대 미학과를 나와서 한국미술에 관한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으며, 나

55 李能和 尙玄, 「大圓覺寺經像鍾塔事蹟一括」, 『佛敎振興會月報』 1-1(1915. 3), pp.14-20. ‘寒水石造十三層塔’. 한편 고종대 편찬으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東國輿地備考』(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영인, 1956)권2 漢城府 佛宇 圓覺寺條에서도 13층탑으로 12회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56 尙玄居士, 「大圓覺寺碑陰記」, 『朝鮮佛敎界』 2(1916. 5), pp.40-43.

57 李能和, 앞의 책(1918), pp.703-711.

58 權相老, 『朝鮮佛敎略史』(京城: 新文館, 1917) p.186, “十三層玉石窠都婆”.

59 權惠奎, 「塔公園(一)」, 『동아일보』 1921. 10. 6. 1면.

60 필자미상, 「경복궁의 石天祿」, 『동아일보』 1925. 10. 29. 3면.

61 崔南善, 「朝鮮歷史講話(18)」, 『동아일보』 1930. 2. 1. 4면.

62 金敬注, 「朝鮮文化和 佛敎(3)」, 『동아일보』 1934. 7. 10. 3면.

63 필자미상, 「원각사비와 십삼층석탑」, 『매일신보』 1936. 8. 15. 3면.

64 金映遂, 『朝鮮佛敎史叢』(京城: 中央佛敎專門學校, 1939 謄寫本), p.142, “十三層塔”.

중에 개성박물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세키노의 다층설을 따르기도 하였는데,<sup>65</sup> 곧바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13층설로 정정하였다.

후세의 예에 속하는 것이나 개성 폐경천사의 석탑과 같은, 경성 원각사지의 석탑과 같은 건축적으로 십층탑이나 고기에는 대개 십삼층탑이라 칭하고 있다. 그 소이연은 따로 그 항목에서 논술하겠으나 그곳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sup>66</sup>

안타깝게도 여기서 말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 따로 논고를 남기지는 못하였다. 다만 만년에 고유섭이 직접 경천사를 답사한 다음 13불회를 처음 주목하고 그것을 13층탑과 연계해서 해석을 시도한 것은 경청할 만하다.

지금 건축적으로 말하면 기단이 3층이요 탑신이 9층이라, 이대로 말하면 9층탑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고기에 13층탑이라 한 것도 이 13불회에 의하여 그것을 법계 13층탑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67</sup>

다만 고유섭이 조선의 불탑에 대하여 학술적 글을 발표할 당시에는 이미 다층설이 확정된 다음이었다. 게다가 고유섭이 일찍 타계하는 바람에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논문으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 2. 1962년 국보 재지정과 10층설

해방 이후 원각사탑의 중대한 현상 변화는 지상에 내려져 있던 상층부 3개층을 1946년 2월 미군 공병부대의 도움으로 원위치에 다시 올린 점이다(도 9).<sup>68</sup> 이로써 연구자들은 건립 당시의 원상을 비로소 조사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일제시기의 다층설이 유지되는 가운데, 조선의 석자

65 高裕燮, 「朝鮮塔婆概說」, 『新興』 6(1932); \_\_\_\_, 『高裕燮全集』 3(通文館, 1993), p.110.

66 高裕燮, 「우리의 美術과 工藝」, 『동아일보』 1934. 10. 20. 3면; 高裕燮 遺稿, 「朝鮮塔婆의 研究(其二)」, 『朝鮮塔婆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p.175. 후자는 미발표 논고로서 책의 편집자인 황수영에 따르면, 1934년 가을 무렵부터 집필되었다고 한다.

67 高裕燮, 「扶蘇山敬天寺塔」, 『高麗時報』 1940. 9. 16; \_\_\_\_, 『松都古蹟』(京城: 博文出版社, 1946), pp.181-188; \_\_\_\_, 『高裕燮全集』 4(서울: 通文館, 1993), pp.222-227 재수록.

68 『조선일보』 1946. 2. 18. 2면, 「四世紀半만에 原型復元」, 「小年彫刻家の 作品」. 복원 작업은 2월 17, 18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李相佰, 「圓覺寺始末考」, 『鄉土서울』 2(1958), pp.111-112에 편집자가 당시 현장을 참관한 가람 李秉岐(1891-1968)의 『日記抄』에서 전제한 1946년 2월 17-18일 기록을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유리건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층들 사이에서는 13층설이 다수이되,<sup>69</sup> 간혹 10층설을 따르는 학자도 있었다.<sup>70</sup>

한편 해방 직후 미군정기부터 조선총독부가 1933년에 제정한 보존령을 새로 정비하려는 시도가 적어도 두 차례 있었지만, 해방 정국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1950년대 후반까지 미루어졌다.<sup>71</sup> 단지 ‘조선’을 ‘한국’으로 고치고 일제가 ‘보물’로 격하시킨 명칭을 ‘국보’로 바꾸어서 시행하는 데에 그쳤다. 1955년 문교부는 保存令에 따라 한국 전쟁 등으로 멸실되거나 소실된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원각사지다층석탑’(국보 제4호)이 포함된 국보 총 419점의 목록을 새로 작성하였으며,<sup>72</sup> 이듬해 이 목록에 따른 『國寶圖錄』이 출간되었다.<sup>73</sup>

원각사탑의 명칭과 관련하여 그 모범인 경천사탑의 명칭을 간과할 수 없다. 1904년 세키노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경천사탑이 세인의 이목을 끌게 되었는데, 급기야 1909년 일본 궁내대신 타나카 미쓰야키(田中光顯)가 이 탑을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직후 국내외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어쩔 수 없이 1918년 11월에 탑을 조선으로 반환하였다. 이때부터 40여 년 동안 경천사탑은 반출 당시의 무리한 해체로 크게 파손된 상태로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방치되었는데, 마침내 1959년 8월 문교부가 경천사탑을 경복궁 안 옛 박물관 앞뜰에 복원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sup>74</sup> 그리고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제31차 회의에서 복원 중인 경천사탑을 국보 제503호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sup>75</sup> 문교부는 1960년 2월 3일자로 이를 고시하였다.<sup>76</sup>



도 9. 1946년 2월 18일 미 공병대가 기중기로 꼭대기층 옥개석을 올리는 순간, 국립중앙박물관(건판22282)

69 『경향신문』 1948. 11. 16. 4면 「허무러지는 탑꼴 13층탑」; 『동아일보』 1948. 11. 16. 2면 「빠고다塔 鐵網을 寄贈」.

70 金瑑俊, 『朝鮮美術大要』(서울: 乙酉文化社, 1949), pp.152-154, 「廢敬天寺의 十層青大理石塔」, pp.211-212, 「廢圓覺寺 十層白大理石塔」.

71 미군정기인 1947년 문교부가 제출한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법안’을 立法議院이 안전으로 상정하여 심사에 부친 바 있으며(『경향신문』 1947. 9. 11. 1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다시 정부가 국회에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법(案)’을 제출하였는데(『경향신문』 1950. 3. 18. 2면; 『동아일보』 1950. 3. 19. 2면), 어떤 일인지 이 법안은 5월 30일자로 폐기되었다.

72 文教部, 『韓國國寶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目錄』(1956), p.1, p.35.

73 朴魯英 編著, 『國寶圖錄』(서울: 黑白社, 1957), p.5, 사진 및 캡션. 이 도록의 권두서는 국립박물관장 김재원이 썼을 뿐 아니라, 편저자의 自序에서 국립박물관의 김원룡, 최순우, 윤무병, 임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황수영, 그리고 문교부의 李丙國 등으로부터 아낌없는 지도 협력을 받았음을 밝혔다.

74 『조선일보』 1960. 8. 1. 4면, 「머림받았던 경천사십층석탑」.

75 문교부, 〈경천사십층석탑 국보지정건 품의〉(1960. 1. 26. 기안); 『조선일보』 1959. 12. 25. 3면.

76 『동아일보』 1960. 2. 5. 3면 및 『조선일보』 1960. 2. 5. 3면 참조.

당시 ‘경천사십층석탑’으로 명명한 결정적인 근거는 김원용(당시 국립박물관 학예관)이 제31차 회의 때 제출한 다음의 실태조사였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회색 대리석으로 된 것이며 四面斗出星形의 평면을 가진 3층 기단 위에 다시 同形의 탑신 3층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방형 탑신 7층을 올린 것으로 도합 10층이 된다. 전고는 44.5척이고 기단 주위에는 불·보살·인물·草花·蟠龍 등을 양각하고 그 위에 탑신에는 柱·두공·高欄·옥개 등을 만들고 불·보살·天部·기타의 상을 전면에 조각하고 있으며 彫像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매우 우수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 탑의 형식은 파고다 공원의 원각사석탑과 같으며 원각사 석탑은 이를 모방하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밑줄 필자)<sup>77</sup>

경천사탑에 대해서는 해체되기 직전의 경천사탑을 현장 조사하였던 세키노의 1904년 보고서가 독보적인 학술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후 보고서의 내용을 거듭 수정 보완하였는데, 1932년 간행한 『朝鮮美術史』가 사실상 최종판이다. 김원용의 실태조사는 이 책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sup>78</sup> 다만 세키노는 위 책에서 두 탑 모두 다층탑이라는 주장을 견지하였는데, 김원용은 세키노의 진술에 의거하면서도 명칭 만큼은 다층탑이 아니라 10층탑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세키노는, 『조선고적도보』제6책(1918)에 보이듯이, 원각사탑과 달리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경천사탑 만큼은 한동안 10층설을 고수하였다.<sup>79</sup> 그리고 원각사탑은 1913년부터 일관되게 다층설을 주장하였지만, 다층설은 10층설과 13층설의 미봉에 불과하였기에, ‘원각사다층석탑’은 세키노의 만년인 1934년에 가서야 비로소 공인되었다. 당연히 그 이전에는 『고적금융물등록대장초록』(1924)에 보이듯이, 세키노의 10층설이 공인된 건해였다. 결국 1959년 경천사탑을 처음 국보로 지정할 때 공식 명칭을 ‘경천사십층석탑’이라 한 것은, 세키노의 10층설을 채택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경천사탑 복원 실무를 담당한 林泉이 제작한 도면에는 ‘경천사지십삼층석탑’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의 사후 申榮勳이 조사한 「林泉先生 經歷」에서도 ‘1949년 경복궁에 경천사십삼층탑 복원’이라고 하였다.<sup>80</sup> 임천은 해방 이후 국립박물관에 들어와서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분야의 업적을 쌓았는데, 그는 고유섭으로 대표되는 조선 지식인들의 13층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복원할 무렵 식

77 문교부 문화보존과 기안, <경천사십층석탑 국보지정건>(1960. 1. 26) 첨부 <指定(申請)文化財實態調査—경천사십층석탑>.  
78 참고문헌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태조사에서 언급한 ‘四面斗出星形의 용어는 세키노가 1923년 9월부터 1924년 11월까지 『朝鮮史講座』에 연재한 ‘朝鮮美術史’에서 처음 사용한 듯하다. 이 연재물은 나중에 합쳐서 『朝鮮美術史』(1932)와 『朝鮮의 建築と藝術』(1941)로 간행되었다. 나중에 金元龍은 대표작인 『韓國美術史』(東京: 汎文社, 1968, pp.261-262)에서 ‘경천사지십층석탑’을 언급하였으며,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앞의 두 책과 더불어 『韓國建築調査報告』(1904)를 제시하였다.  
79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제6책(1918), pp.752-753 ‘廢敬天寺十重大理石塔’.  
80 申榮勳 調査, 「林泉先生 經歷」, 『故林泉先生遺作目錄』, 『考古美術』 통권 63,64합(1965), p.126, p.127.

자층에서는 전통적인 13층설이 한동안 통용되기도 하였다.<sup>81</sup>

1961년 12월 군사정권 최고회의는 문화재보호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는데,<sup>82</sup>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자로 공포되었다.<sup>83</sup> 그리고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는 6월부터 舊국보 572종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하여 제6차 회의(7월 12일)에서 ‘원각사지다층석탑’을 국보 4호로 재지정하였다.<sup>84</sup> 그리고 제16차 회의(11월 2일) 때 앞서 재지정된 국보 61점의 재지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47점을 국보로 추가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경천사탑이 ‘국보 503호 경천사지십층석탑’으로 지정되었다.<sup>85</sup> 이어서 기존의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분류할 때 국보 105점을 재지정하고 3점을 신규로 지정하였는데, ‘원각사지다층석탑’은 국보 4호에서 국보 2호로, ‘경천사지십층석탑’은 국보 503호에서 국보 86호로 각각 재지정되었다.<sup>86</sup> 그 직후인 11월 23일 제17차 회의에서 국보 108점에 대하여 재지정을 확인하면서 18점은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는데, 제2호는 ‘원각사지다층석탑’에서 ‘원각사지10층석탑’으로, 제86호는 ‘경천사지10층석탑’에서 ‘경천사10층석탑’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sup>87</sup> 1962년 12월 20일자로 고시하였다.<sup>88</sup>

제16, 17차의 두 차례 회의에는 김원용이 위원 자격으로 모두 참석하였으며, 17차 회의에 임친은 위원이 아니라 참서관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임친은 1961년 4월~6월 당시 문화재보존위원 제1분과 전문위원이었으며, 원각사탑의 명칭을 바꾸는 위원회에도 참석하였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현재의 10층설은 김원용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60년 초 경천사탑 복원 공사를 마치면서 문화재로 처음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를 담당한 김원용은 훼손되기 직전의 경천사탑을 유일하게 현지 조사한 세키노의 1904년 보고서를 토대로 경천사탑을 ‘10층탑’이라 확정하되 탑의 구체적인 정보는 1932년의 『조선미술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1962년 말의 제17차 회의에서 1934년 이래 그때까지 다층탑으로 불리우던 원각사탑의 명칭을 그 모범인 경천사탑에 준하여 다시 10층탑으로 되돌렸다. 이때 확정된 경천사탑과 원각사탑 두 탑의 10층설이 대중화하면서,<sup>89</sup> 이후 60년 동안 정설로 자리잡게 되었다.<sup>90</sup>

81 『동아일보』 1957. 6. 14. 4면, 「市內名所 巡禮1」; 『동아일보』 1961. 6. 7. 석간 4면(6. 8. 조간 4면), 「十三層石塔」.

82 『동아일보』 1961. 12. 27. 1면, 3면, 「文化財保護法등 最高會議常委通過」.

83 『동아일보』 1962. 1. 11. 1면, 「文化財保護法등 公布」.

84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록>(1962. 7. 12.).

85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6차 회의록>(1962. 11. 2.); 『동아일보』 1962. 11. 3. 6면, 「精選國寶百六種」.

86 文化財委員會 第一分科委員會, <再分類指定國寶目錄>(1962), p.1, p.4; 『경향신문』 1962. 11. 23. 7면, 「새國寶百9點 지정」; 『東亞日報』 1962. 11. 24. 4면, 「再指定된 國寶」.

87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7차 회의록>(1962. 11. 23.).

88 <官報> 호외(1962. 12. 29.), 문교부고시 제169호, p.외1329, p.외1331.

89 『동아일보』 1963. 1. 9. 6면, 「국보순례43 敬天寺址十層石塔」.

90 황수영, 「원각사 연혁」, 『이것이 탑골탑의 놀라운 조각들!—원각사 10층대리석탑 특별전—』(개관 두돌 기념전, 1994), 궁중유물전시관, p.71.



## V. 맺음말

본고는 원각사탑에 대한 지난 백 년간의 근대 학설사를 층수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이하에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고 현재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10층설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창건 당시의 13층설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근대 개항기에 조선을 여행한 서양인들이 종래 한성의 ‘非美’내지는 흉물로 간주되던 원각사탑을 한성의 ‘奇觀’ 나아가 ‘偉觀’으로 재발견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들은 불탑에 관한 예비지식이 거의 없는 서양 출신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원각사탑에 대하여 객관적인 견문을 남길 수 있었는바, 그들이 접촉한 조선 지식인들을 통하여 대체로 13층설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일인 관변학자들이 원각사탑을 본격적으로 학술 조사하고, 일제식민기 동안 조선총독부가 원각사탑을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과정 및 그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100여 년 동안 원각사탑 층수 문제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학설이 10층설에서 13층설로, 다시 다층설로 변하면서, 탑의 형상에 관한 기술은 변함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의 10층설과 다층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차례로 공인되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62년까지 원각사탑에 대한 인식이 다층설에서 10층설로 바뀐 경과를 정리하되, 선행하는 일제식민기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이 13층설 일변도였음을 특기해두었다. 다만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원각사탑에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성과가 적지않이 발표되었지만, 층수에 관한 한 대부분 1962년에 확정된 10층설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요약하였듯이, 원각사탑이 13층탑으로서 건립되었다는 근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백 년이 넘도록 13층설은 단 한 번도 공인받지 못하였으며, 학계에서 층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원각사탑과 경천사탑이 10층탑이라는 현재의 통설은, 백 년 전에 세키노가 최초로 주창하였다. 1902년 세키노는 원각사에 남아있는 「원각사비」가 글자를 거의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마멸이 심하였기 때문에 원각사탑의 현상만 건축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10층탑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발견된 『속동문선』 수록 「원각사비」에서 ‘탑 13층을 세웠다.’라는 구절이 확인되었다.(도 8) 또한 15세기 후반 왕명으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한 편찬자들도 원각사탑의 모범인 경천사탑 또한 ‘13층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원각사탑 건립 직후 왕명으로 건립된 「원각사비」는 세키노의 10층설이 전제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세키노는,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이 올려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13층탑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원각사비」는 세조가 처음부터 13층탑으로서 원각사탑을 건립하였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다만 이례적이게도, 13층탑을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을 올린 형태로 조성하였을 따름이다.

일찍이 박종희는, ‘사물을 눈으로 보면 알게 되고 알면 믿게 된다.’라고 하였다.<sup>91</sup> 그렇다면 세조는 무엇을 믿게 하려고 13층탑을 세웠으며, 왜 그것을 3층의 기단 위에 탑신 10층이라는 이례적인 형태로 구현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세조가 원각사13층탑을 건립한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원각사탑의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바, 그 첫 단추는 원래의 명칭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필자는 전제의 오류 위에 구축된 세키노의 10층설—나아가 절충적인 다층설—은 이제 폐기하고, 「원각사비」에서 말하는 13층설을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

91 주 17 참조.

## 참고문헌

### 【1차 문헌】

#### 1) 지도 · 지리지

『大東金石書』(京城帝大法文學部 影印, 1932)

『大東地志』(金正浩)

『東國輿地備考』(저자 미상)

『東國輿地勝覽』

『續東文選』

『漢京識略』(柳本藝 著)

〈朝鮮城市圖〉(1830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京城圖〉(19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3256)

〈塔洞宴帖〉(작가 미상, 1803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2) 연대기자료

『朝鮮王朝實錄』

#### 3) 문집

『金陵集』

『晚村漫稿』

『三溟詩集』

『拭疣集』

『雅亭遺稿』

『正菴集』

#### 4) 신문 · 관보 등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朝鮮總督府官報』

『朝鮮古蹟圖譜』 제6책(朝鮮總督府, 1918) 및 제13책(朝鮮總督府, 1919)

『朝鮮金石總覽』下(朝鮮總督府, 1919)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要覽』(朝鮮總督府, 1937)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朝鮮總督府, 1923)

【연구·논저】

1) 단행본

- 高裕燮, 『松都古蹟』, 京城: 博文出版社, 1946.
- \_\_\_\_\_, 『高裕燮全集』4, 서울: 通文館, 1993.
- 金映遂, 『朝鮮佛教史藁』, 京城: 中央佛教專門學校, 1939(謄寫本).
- 金瑬俊, 『朝鮮美術大要』, 서울: 乙酉文化社, 1949.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천사 십층석탑』Ⅱ 연구 논문, 대전: 2006.
- 궁중유물전시관, 『원각사 10층대리석탑 특별전』(개관두돌기념전 도록), 1994.
- 權相老, 『朝鮮佛教略史』, 京城: 新文館, 1917.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下, 京城: 新文館, 1918.
- 서울역사박물관, 『탑골에서 부는 바람: 백담과 이야기』,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5.
- 유본에 저·장지연 역해, 『한경지략』, 파주: 아카넷, 2020.
- 장지연, 『고려·조선 국도풍수론과 정치이념』, 성남: 신구문화사, 2015.
-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청년사, 1999.
- 關野 貞 지음; 沈雨晟 옮김, 『조선미술사』, 서울: 東文選, 2003.
- E. Burton Holmes 지음; 이진석 옮김, 『1901년 서울을 걷다』, 서울: 푸른길, 2021.
- Isabella B. Bishop 지음;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살림, 1994.
- Percival Lowell 지음; 조정철 옮김,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서울, 예담, 2001.
- 關野 貞, 『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學術報告 6),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1904.
- \_\_\_\_\_, 『朝鮮美術史』, 京城: 朝鮮史學會, 1932.
- \_\_\_\_\_, 『朝鮮の建築と藝術』(關野博士記念事業會 編), 東京: 岩波書店, 1941.
- \_\_\_\_\_, 『朝鮮藝術の研究』, 1910; 『韓國併合史研究資料』92, 東京: 龍溪書舍, 2011 復刻.
-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東京: 彰國社, 1944.
- 幣原坦, 『朝鮮史話』, 東京: 富山房, 1924.
- A. Henry Savage-Landor, *COREA OR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London: William Heinemann, 1895.
- E. Burton Holmes, *Seoul, The Capital of Korea*(Travelogues—with Illustrations from Photographs by the Author. Vol. 10), New York: The McClure Company, 1908.
- Isabella B. Bishop, *Korea & Her Neighbours*. Vol. 1, London: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1898.
- James S. Gale, *Korean Sketch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8.
- Percival Lowell, *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Boston: Ticknor and Company, 1886. 2nd edition.

## 2) 논문

- 高裕燮, 「朝鮮塔婆概說」, 『新興』 6, 1932
- \_\_\_\_\_, 『高裕燮全集』 3, 서울: 通文館, 1993.
- \_\_\_\_\_, 「우리의 美術과 工藝」, 『동아일보』 1934. 10. 20. 3면.
- \_\_\_\_\_, 「扶蘇山 敬天寺塔」, 『高麗時報』 1940. 9. 16; 『高裕燮全集』 4, 서울: 通文館, 1993.
- \_\_\_\_\_, 「朝鮮 塔婆의 研究(其二)」, 『朝鮮塔婆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48.
- \_\_\_\_\_, 「扶蘇山敬天寺塔」, 『高麗時報』 1940. 9. 16.
- 權憲奎, 「塔公園(一)」, 『동아일보』 1921. 10. 6. 1면.
- 金敬注, 「朝鮮文化와 佛教(3)」, 『동아일보』 1934. 7. 10. 3면.
- 文明大, 「圓覺寺10層石塔 16불회도의 도상특징—한성의 조선초기 조각—」, 『講座 美術史』 19, 2002.
- 尙玄居士, 「大圓覺寺碑陰記」, 『朝鮮佛敎界』 2, 1916.
- 蘇在龜, 「圓覺寺址十層石塔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
- 申紹然, 「圓覺寺址 十層石塔의 西遊記 浮彫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愼銀貞, 「敬天寺十層石塔의 綜合的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禹貞相, 「圓覺寺塔婆의 思想的 研究—특히 十三會에 對하여—」, 『東國思想』 1, 1958.
- 李能和 尙玄, 「大圓覺寺經像鍾塔事蹟一括」, 『佛敎振興會月報』 1-1, 1915. 3.
- 李炳熙, 「朝鮮前期 圓覺寺의 造營과 運營」, 『文化史學』 34, 2010.
- 李相佰, 「圓覺寺始末考」, 『鄉土서울』 2, 1958.
- 崔南善, 「朝鮮歷史講話(18)」, 『동아일보』 1930. 2. 1. 4면.
- 葛城末治, 「朝鮮金石文」, 『朝鮮史講座』 제14호, 1924.
- 關野 貞, 「韓國京城廢大圓覺寺石塔婆」, 『考古界』 제3권 제4호, 1903.
- \_\_\_\_\_, 「談山神社十三重塔」, 『建築雜誌』 231, 1906.
- \_\_\_\_\_, 「朝鮮의 石塔婆(五)」, 『國華』 第24編 第280號, 1913.
- \_\_\_\_\_, 「朝鮮美術史」, 『朝鮮史講座』 제11호, 1924.
- \_\_\_\_\_, 「韓國藝術의 變遷に就て」, 『韓紅葉』, 1909, 度支部建築所『韓國併合史研究資料』 92, 東京: 龍溪書舍, 2011 復刻.
- 金澤庄三郎, 「韓國의 首都京城」, 『朝鮮月報』 4, 1900.
- 藤島亥治郎, 「朝鮮塔婆의 樣式と變遷」, 『塔婆之研究』, 1933.
- 小田幹治郎, 「京城塔洞公園の塔碑」, 『朝鮮總督府月報』 第5卷 第1號, 1915.
- 朝鮮總督府, 「朝鮮金石文의 陳列」, 『朝鮮總督府月報』 제4권 제9호, 1914.
- 杉山信三, 「朝鮮圓覺寺多層石塔造立年次への疑ひ」, 『日本建築學會研究報告』 4, 1949.
- 幣原坦, 「京城塔洞의 古塔에 關する諸記錄に就て」, 『韓國研究會談話錄』 第3号, 1903.
- 幣原坦, 「パコダ公園の古塔考」, 『朝鮮研究』 第1卷 第9號, 1928.
- Horace N. Allen, "The Marble Pagoda: or Stone Pagoda", *The Korean Repository*, April, 1895.



James S. Gale, "The Pagoda of Seoul",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VI, part II, 1915.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main.do>)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main>)

NAVER 뉴스라이버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The Modern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about the Thirteen-story Stone Pagoda of Wongaksa Temple

Nam Dongsin<sup>\*</sup>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theories connected to the Wongaksa Temple Pagoda that have developed over the last 100 years focusing on the original number of stories the pagoda would have reached.

Part II of this paper retraces the dynamic process of the rediscovery of the Wongaksa Temple Pagoda by Westerners who traveled to Korea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Koreans at the time viewed the Wongaksa Temple Pagoda as an object of no particular appeal or even as an eyesore. However, Westerners appreciated it as a wonder or magnificent sight. Since these Westerners had almost no prior knowledge of Buddhist pagodas, they were able to write objective travelogues. At the time, these visitors generally accepted the theory common among Joseon intellectuals that Wongaksa Temple Pagoda once had thirteen stories. Part III focuses on Japanese government-affiliated scholars' academic research on the Wongaksa Temple Pagoda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subsequent management of the pagoda as a cultural property during the colonial era. It also discusses issues with Japanese academic research and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portion sheds light on the shift in theories about the original number of stories of the Wongaksa Temple Pagoda from the ten-story theory supported by Sekino Tadashi (關野 貞), whose ideas have held a great influence on this issue over the last 100 years, to the thirteen-story theory and then to the idea that it had more than thirteen. Finally, Part IV addresses the change from the multi-story theory to the ten-story theory in the years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until 1962. Moreover, it highlights how Korean intellectual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predominantly accepted the thirteen-story theory. Since 1962, a considerable quantity of significant research on the Wongaksa Temple Pagoda has been published. However, since most of these studies have applied the ten-story theory suggested in 1962, they are not individually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retracing of the history of theories about the Wongaksa Temple Pagoda has verified that although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supporting the thirteen-story theory, it has not been proved in the last 100 years. Moreover, the number of pagoda stories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in academia. The common theory that both Wongaksa Temple Pagoda and Gyeongcheonsa Temple Pagoda were ten-

---

<sup>\*</sup>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tory pagodas was first formulated by Sekino Tadashi 100 years ago. Since the abrasion of the Wongaksa Temple Stele was so severe the inscriptions on the stele were almost illegible, Sekino argued that the Wongaksa Temple Pagoda was a ten-story pagoda based on an architectural analysis of the then-current condition of the pagoda. Immediately after Sekino presented his argument, a woodblock-printed version of the inscriptions on the Wongaksa Temple Stele was found. This version included a phrase that a thirteen-story pagoda had been erected. In a similar vein, the Dongguk yeoji seungnam (Geographic Encyclopedia of Korea) published by the orders of King Seongjong in the late fifteenth century documented that Gyeongcheonsa Temple Pagoda, the model for the Wongaksa Temple Pagoda, was also a thirteen-story pagoda.

The Wongaksa Temple Stele erected on the orders of King Sejo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Wongaksa Temple Pagoda evidently shows that Sekino's ten-story premise is flawed. Sekino himself wrote that "as [the pagoda] consists of a three-story stereobate and a ten-story body, people call it a thirteen-story pagoda," although he viewed the number of stories of the pagoda body as that of the entire pagoda. The inscriptions on the Wongaksa Temple Stele also clearly indicate that the king ordered the construction of the Wongaksa Temple Pagoda as a thirteen-story pagoda. Although unprecedented, this thirteen-story pagoda comprised a ten-story pagoda body over a three-story stereobate.

Why would King Sejo have built a thirteen-story pagoda in an unusual form consisting of a ten-story body on top of a three-story stereobate?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King Sejo's intention in building a thirteen-story pagoda, analyzing the Wongaksa Temple Pagoda is necessary. This begins with the restoration of its original name. I disprove Sekino's ten-story theory built upon flawed premises and an eclectic over-thirteen-story theory and urge applying the thirteen-story theory, as the inscriptions on the Wongaksa Temple Stele stated that the pagoda was originally built as a thirteen-story pagoda.

Keywords: King Sejo, Wongaksa Temple Pagoda, Wongaksa Temple Stele, thirteen-story theory, Percival Lowell, Sekino Tadashi, Yi Neung-hwa, Ko Yu-seop

